

농업유산 '제주밭담' 보전·활용 청사진

정부·제주도, 올 하반기부터 3년간 15억 투입
 종합계획 수립·복원정비·축제·체험공원 추진
 농촌관광 등 1·3차산업 연계 농가소득화 검토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중인 '제주 밭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오는 7월부터 잇따라 착수된다.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자원조사, 복원·정비, 축제, 석공 장인 발굴·지정, 농가소득화, 체험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제주밭담의 지속가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하는 제주밭담의 보전 및 활용관리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최종 협의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 계획은 제주밭담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크게 정비개발과 환경개선, 가치제고에 중점을 뒀다. 제주밭담 보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설계와 자원조사, 시범지역 경관 조성 등 복원·정비, 탐방코스과 테마공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제주밭담의 가치창조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추진된다.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은

농업유산의 보전·활용·관리 실행 사업을 도출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기본방향과 제주 밭담 보전지구 설정, 복원·정비계획, 조례 제정 방안 등을 제시한다.

자원조사에서는 제주밭담의 재료와 형식, 연장, 재배작물 등을 비롯해 생물종다양성 등 생태환경과 맵을 작성하게 된다. 또 제주밭담의 복원·정비를 위해 소유자, 위치, 면적, 보존상태에 대해 실태조사하며 인근 휴경지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과 훼손 밭담의 정비 및 핵심지구내 원형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지구내에는 탐방코스과 테마공원사업도 이뤄진다.

제주밭담의 다양한 가치 창조를 위해 스토리텔링 및 가이드북 제작, 해설사 양성 및 체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주돌문화아카데미 운영, 농업유산 홈페이지 구축, 상표등록 관리도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연계한 제주밭담 축제를 기획, 관광 상품화하고 공예품 개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밭담의 보전·관리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1·3차산업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시영기자



스킨스쿠버 즐기는 관광객들. 전국적으로 장마날씨가 본격 시작된 18일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 해안에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스킨스쿠버 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photo@ihalla.com

사려니숲을 전국 최고 명품숲길로

제주시, 2015년까지 종합관리대책 추진키로
 임업체험장과 인근지역 농산물 전시공간도

치유와 명상의 숲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려니숲길'이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숲길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려니숲길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약 16km의 숲길이다.

제주시는 연간 30만명 이상이 찾고 있는 사려니숲길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세워 오는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숲 유치원 체험장 조성 과 숲의 자연·문화자원을 조사

해 숲길 탐방객들에게 숲길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표고버섯배재장 인근에 임업체험 공간과 교래리·봉개동 등 인근 지역농산물 전시공간도 마련해 구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직거래를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숲길 인근 도로를 따라 걷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와 가까운 곳에 안전숲길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숲길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체주차장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와 함께 연중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짐에 따라 탐방객 안전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에 전기차 1대와 상시 정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사려니숲길에 지난해 2억6000만원을 들여 생태숲길 1.2km 조성을 비롯해 천미천에 목교와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을 설치했다. 올해는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숲길 입구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평탄한 숲길로 어른 아이 모두가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사려니숲길을 누구나 걷고 싶어하는 명품 숲길로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손낸다

생산과 유통업체 상호 연계 부족 등 유통 한계
 도, TF 구성 실효성 있는 유통시스템 마련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손질에 나선다.

이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친환경농업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경쟁력 강화차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유통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유통체계 개선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도내 유통체계는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에서 생산·유통업체(영농법인 등)의 독자적 운영체계가 농가와 업체간 상호연계성이 부족해 소비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와함

게 농(감)협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참여시켜 농(감)협

계통출하를 통한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학계, 행정, 농협, 친환경영농법인, 친환경농업인단체 등 친환경농업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된 TF를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18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TF는 유통업체 조직화 및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을 중점으로 7월 기초안 마련, 8월 친환경농업인·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신문사랑 전국 NIE 공모전

한국신문협회, 4개 분야

한국신문협회는 2013 신문사랑 전국 NIE 공모전을 연다.

공모 분야 및 참가자격은 ▷신문만들기-한글사랑 신문 만들기(초·중·고 학생), 올해의 학교신문(전국 초·중·고 학생) ▷신문스크랩-전국 초·중·고 학생 ▷에세이(소평론) 쓰기-대학(원)생 ▷NIE 지도교안·아이디어(텍 1)=전국 초·중·고 교사 및 일반인이다.

신문만들기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한 의미와 뜻을 새겨 우리말과 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중한 가꿔갈 수 있는 내용을 신문 형식에 맞게 만들면 된다. 올해의 학교신문은 전국

지도교안·아이디어는 전국 각급 학교에서 실천한 NIE 수업사례 또는 다양한 학습자 특성이나 학습 환경에서 교수·학습이 이뤄진 사례 중 택하면 된다.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에서(www.presskore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우편(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NIE 공모전 담당자 앞)이나 방문 또는 이메일(webmaster@presskorea.or.kr, 이메일 접수는 에세이 쓰기만 가능)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33-2251. 표성준기자

이동필 장관,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필(사진) 장관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 3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 참석해 제주밭담과 청산도 구들장 논 시스템 등 국내 주요 농업유산의 세

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협력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한국 후보자가 GIAHS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하고 2014년까지 한국에 FAO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시영기자

도, 9월부터 읍면지역 고 교통비 지원

오는 9월1일부터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50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2학기부터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교통비

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읍면지역의 학교 내 기숙사시설이 있는 제주의 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한 10개교(대정, 대정여, 성산, 세화, 애월, 표선, 한국뷰티, 한림, 한림공, 함덕고) 재학 학생 5600명중 통학

하는 농어업인 자녀 24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교통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710-3051.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우리집 다음으로 맛있는
양명해장국
 신제주점 3월 25일 OPEN하였습니다.
 신제주점 745-2992
 신제주점 옆에 (주차 30대 가능)
 서귀포점 763-1400
 서귀포 부두에서 전차연료로 방한
 영업시간 : 새벽 4시 ~ 오후 9시



대표전화 064)799-4661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952-2)